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변화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2013. 8.

장 기 재 정 전 망 센 터

< 요 약 >

□ 세계경제위기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이 하락하고 불평등 및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심화

○ 많은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을 당시 이미 OECD 기록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도를 기록

- 높은 실업율과 낮은 자본이익율은 근로 및 자본소득 하락과 소득불평등 증가로 이어짐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근로 및 자본소득의 불평등지수는 앞선 12년 동안의 상승폭만큼 증가

□ 동기간 동안 소득 하락과 소득불평등 심화는 조세·재정지출 정책에 의해 상당부분 완화

○ 다수의 국가들이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펼쳐 소득불평등 상승과 가처분소득 하락을 억제

- 그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의 2010년도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의 변화는 연령·소득계층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거나 더딘 회복세를 보임

- 아동과 청년층 빈곤율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노인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음
-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평균 20%가량 하락하면서 아동 및 청년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1. OECD의 소득불평등 연구

□ OECD의 2011년 보고서[1]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OECD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

- 세계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불평등 및 빈곤율 개선을 위해 노력
- OECD는 정부가 재정긴축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지출 유지의 필요성을 표명[2]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은 공정성, 효율성,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수적임을 강조

○ OECD는 새로운 소득분포 데이터[3]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의 변화와 조세·재정지출의 영향을 분석

- 본 동향보고서는 2013년 5월 발표된 OECD 보고서[4]를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국가의 현황을 분석

---

1)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2011. 12) (http://www.oecd.org/els/soc/dividedwestandwhyinequalitykeepsrising.htm)
2) OECD, "Growing risk of inequality and poverty as crisis hits the poor hardest", (2013. 5) (http://www.oecd.org/els/soc/growing-risk-of-inequality-and-poverty-as-crisis-hits-the-poor-hardest-says-oecd.htm)
3)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4) OECD,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2013. 5) (http://www.oecd.org/els/soc/OECD2013-Inequality-and-Poverty-8p.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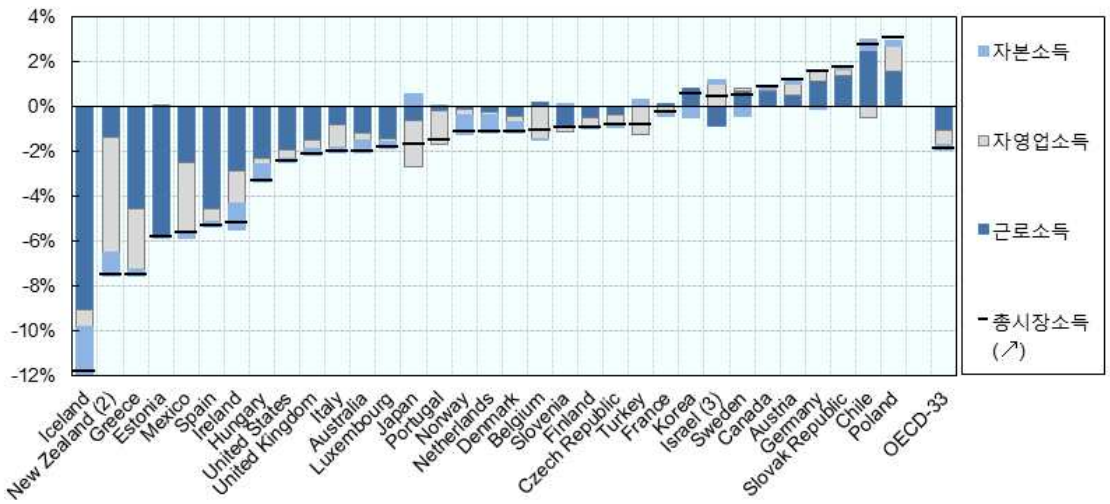
2.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감소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근로와 자본에 의한 소득(즉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

-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자본소득의 감소폭보다 큰 가운데, 실질 가구 시장소득은 연평균 약 2% 감소

<표 1> 소득 구성요소에 의한 가구 시장소득의 연평균 % 변화, 2007년~2010년



주: 1) "2007년"은 칠레와 일본에 한하여 2006년의 데이터, 그리고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에 한하여 2008년의 데이터를 사용. "2010년"은 헝가리, 일본, 터키에 한하여 2009년의 데이터, 그리고 칠레의 경우 2011년의 데이터를 사용. EU-SILC를 바탕으로 한 2010년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한하여 일시적임. 가구 소득은 가구원수에 대해 조정됨. 헝가리, 멕시코, 터키의 시장소득은 세금이 공제된 순액(net of taxes)을 적용

2) 자영업소득과 자본소득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3)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됨. 이러한 OECD 데이터의 사용은 국제법의 조항에 따라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그리고 West Bank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높은 실업률과 낮은 실질임금이 가구 시장소득 감소의 원인

- 실업의 영향은 시장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아이슬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특히 크게 나타남
- 자영업소득은 멕시코, 그리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에서 크게 감소
-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자본소득의 하락 역시 시장소득 감소에 기여

○ 대조적으로 폴란드와 칠레에서는 시장소득이 크게 증가

-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시장소득이 소폭 증가
-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 0.8% 증가하고 자본소득과 자영업소득은 각각 0.45%와 0.02% 감소하면서 시장소득이 연평균 0.49% 상승[5)]

5)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3.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 경제위기로 인하여 시장소득의 불평등 심화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장소득의 분포범위가 확대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니계수로 측정한 OECD 국가의 평균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1.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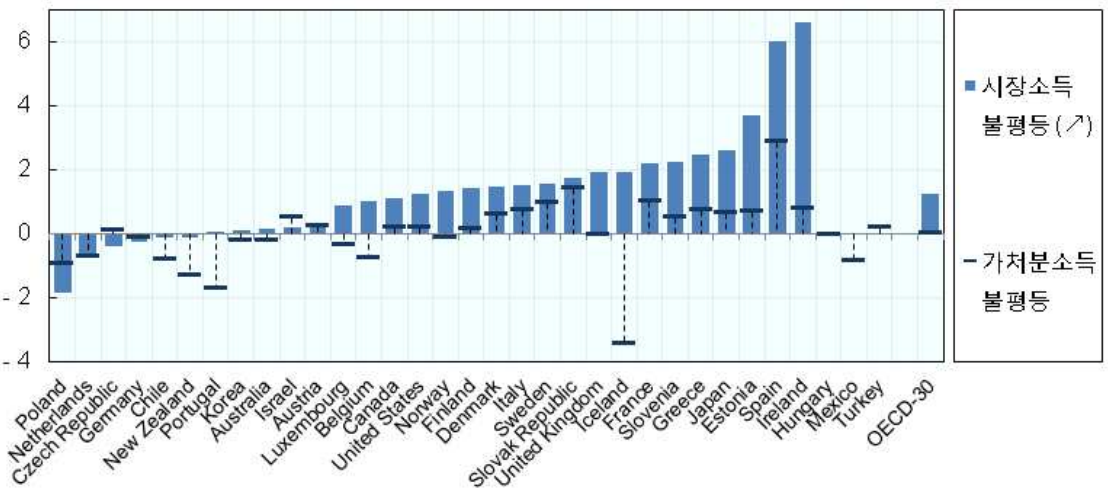
○ 이러한 시장소득 분포의 변화는 불평등 증가의 장기적인 추세에 기여

- OECD 국가 중 데이터가 존재하는 17개국에 한하여 시장소득 불평등은 경제위기 이전 12년간보다 경제위기 이후 3년 동안 더 크게 확대

○ 시장소득 불평등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8개국에서 1%p 이상 증가

- 불평등은 아일랜드, 스페인, 에스토니아, 일본, 그리스 등 평균 시장소득이 크게 하락한 국가에서 특히 크게 확대
- 이에 반해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시장소득 불평등이 감소

<표 2> 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p 변화, 2007년~2010년



주: 표 1 주석 참고

4. 조세·재정지출의 영향

□ 조세정책과 공적이전을 통해 시장소득 감소에 따른 영향을 대부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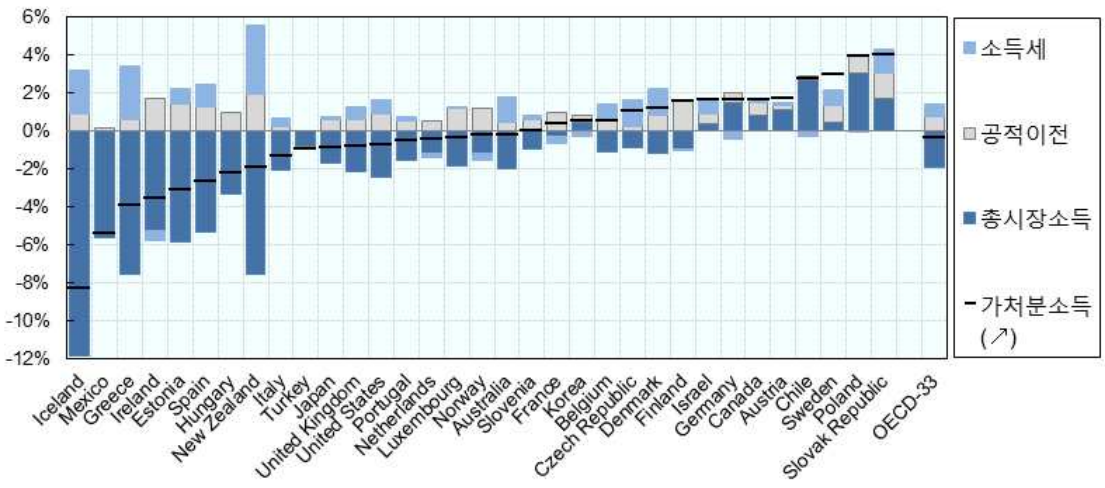
○ 현금공적이전(cash public transfers)과 개인소득세 정책의 영향으로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보다 적은 폭으로 감소

- 경기불황 동안에는 실업 및 기타 안전망(safety-net) 수당 신청이 늘어나면서 공적이전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
- 아울러 일부 OECD 국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부양책에 의한 수요 증진과 소득 하락의 완화를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를 확대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공적이전 증가

- 경제위기의 타격이 큰 국가일수록 공적이전이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크게 기여 (멕시코 예외)
- 아일랜드, 뉴질랜드, 에스토니아에서는 공적이전의 증가로 인하여 실질 가구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2% 상승 (기타소득은 고정으로 가정)
-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한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이 크게 증가
-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의 경우 공적이전의 증가가 시장소득 하락분을 상쇄하거나 초과

<표 3> 소득 구성요소에 의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연간 % 변화, 2007년~2010년



주: 표 1 주석 참고

○ 조세·재정지출(taxes and transfers)은 시장소득 불평등의 영향 제한에도 효과적

- 2007년과 2010년 사이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안정세를 유지 (반면 10개국에서는 지니계수 변화가 0.2 이상)
-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폴란드에서 하락하고, 스페인,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는 상승
- 이스라엘에서는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시장소득 불평등보다 크게 증가하고, 체고와 폴란드에서는 시장소득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크게 하락
- 스페인의 소득불평등 지니계수는 0.31에서 0.34로 증가
- 2000년대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아이슬란드의 지니계수는 경기불황 동안 OECD 국가 중 11단계 하락하여 최저수준으로 감소
- 한국은 공적이전이 증가하고 소득세가 하락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0.42% 증가[6)]

6)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5. OECD 국가 간 소득불평등 차이

□ 국가 간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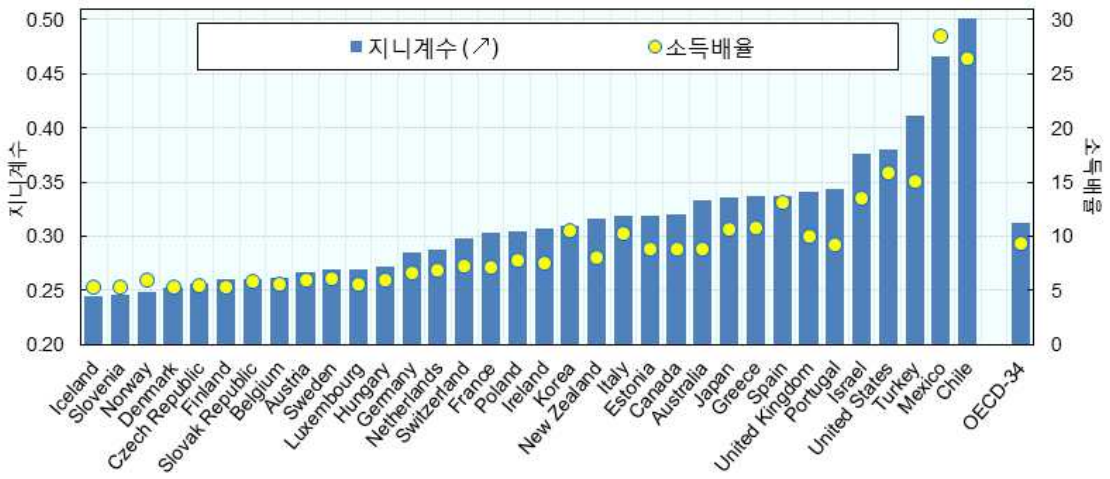
○ OECD 국가 간 불평등도의 큰 차이는 경제위기 동안에도 유지됨

- 지니계수는 아이슬란드의 0.25부터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멕시코와 칠레의 0.5 수준까지 분포
- 북·중유럽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지니계수를 보이는 것에 반해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 이스라엘 등의 국가는 높은 지니계수 유지

○ 소득불평등의 또 다른 지표 역시 비슷한 순위를 보임

- 소득계층 상·하위 10%의 소득배율(S90/S10)은 OECD 국가에서 평균 10:1 수준
- 소득배율은 덴마크에서 5:1 수준임에 반해 멕시코에서는 6배에 가까운 29:1
- 한국은 지니계수 0.31과 소득배율 10.5를 기록하며 OECD 평균에 근접[7]

<표 4>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소득계층 상·하위 10% 소득격차, 2010년



주: 표 1 주석 참고

7)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6. 소득계층별 소득의 변화

□ 소득계층에 따라 경제위기 타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지금까지의 분석은 소득불평등의 평균 및 요약적 지표에 기반

-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소득 분포의 양극단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측정하지 못함
- 소득배율의 변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저소득층이 소득감소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거나 더 부진한 회복세를 보임

○ OECD 국가의 실질 가구 가처분소득은 전반적으로 정체세를 보임

- 2010년 소득계층 상위 10%의 평균소득 역시 2007년 수준으로 유지
- 하위 10%의 평균소득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 감소
- 데이터가 존재하는 33개국 중 21개국에서 상위 10% 가구가 하위 10% 가구보다 소득을 더 잘 보전

○ 이러한 패턴은 가구 소득이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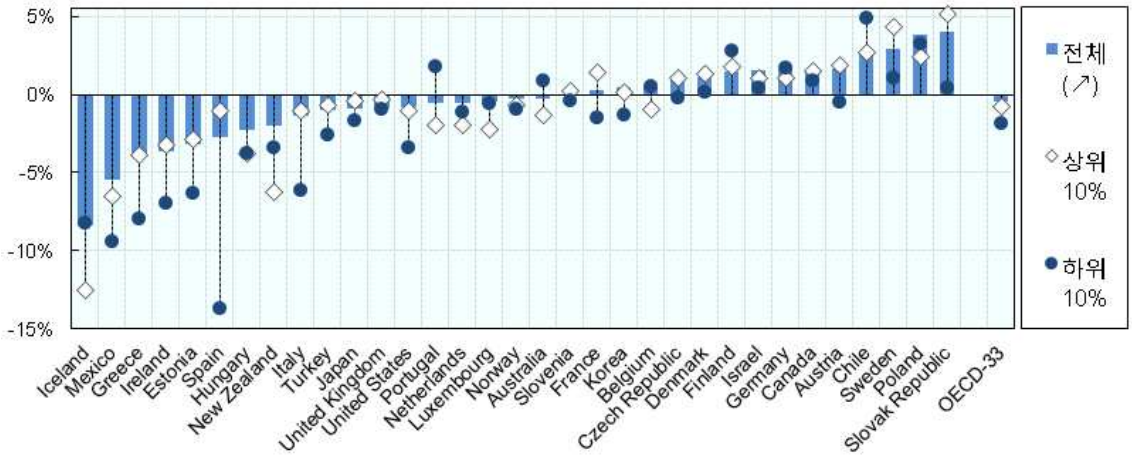
- 2010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2007년 대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현격히 감소
- 멕시코, 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에스토니아에서도 하위 10%의 소득은 연평균 5% 이상 하락
- 이 중 아이슬란드에서만 상위 10%의 소득 하락이 연평균 13%로 하위 10%의 소득 하락인 연평균 8%를 초과

○ 평균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은 국가들은 다양한 패턴을 보임

-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반면, 호주와 포르투갈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고소득층 가구보다 크게 상승
- 한국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은 0.18% 상승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1.29% 하락[8)]

8) 8)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표 5> 소득계층별 가구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 변화, 2007년~2010년



주: 표 1 주석 참고

7.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의 변화

□ 빈곤 동향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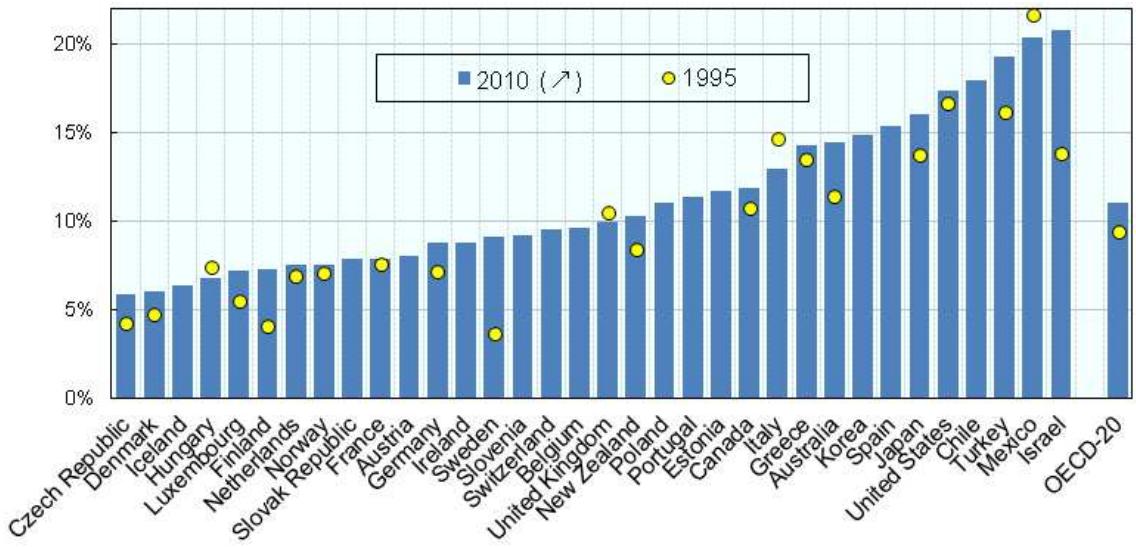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은 평균 11%이며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빈곤율은 덴마크와 체코의 6%부터 칠레,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의 18%~21% 수준까지 넓게 분포

○ 2007년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상대적 빈곤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상승

- 특히 1990년대 중반 빈곤율이 낮던 국가에서 크게 상승
-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체코에서 빈곤율이 2%p 이상 상승 (스웨덴의 경우 1995년 4%였던 빈곤율이 2010년 9%로 두 배 이상 상승)
- 칠레와 이탈리아 등 몇 개국에서는 빈곤율이 하락
- 한국의 2010년도 상대적 빈곤율은 14.9%를 기록[9)]

<표 6> 상대적 빈곤율, 1995년 & 2010년



주: 소득 빈곤은 소득이 해당 국가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정의

9)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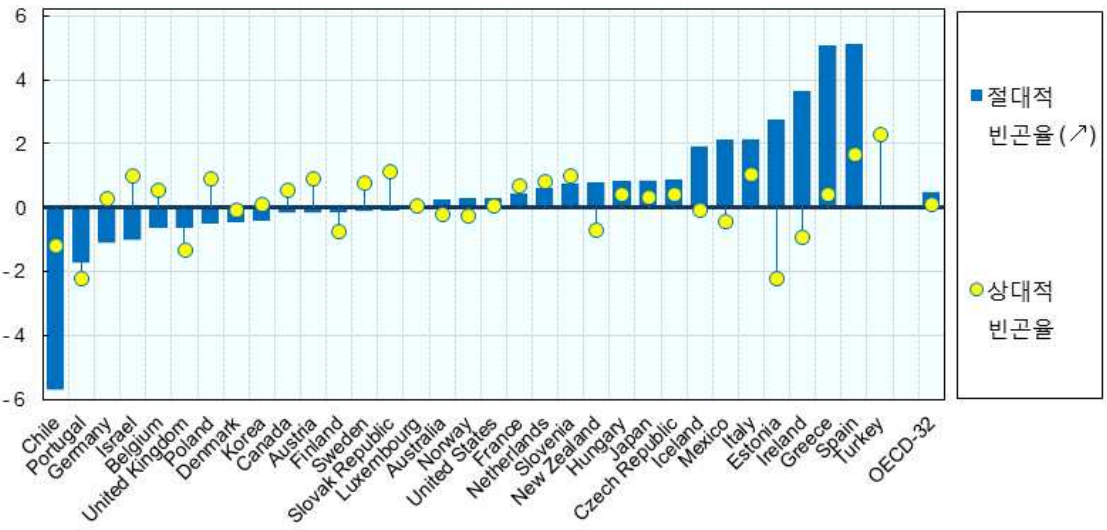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

- 2007년과 2010년 사이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한하여 상대적 빈곤율이 1%p 이상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칠레, 영국, 포르투갈, 에스토니아에서는 빈곤율이 하락
-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빈곤율 변화가 1%p 미만

○ 작은 빈곤율 변동폭은 같은 기간 시장소득의 큰 변화와 대조되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OECD 국가 중 3/4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세금과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income before taxes and transfers)으로 측정한 빈곤율이 1%p 이상 상승(OECD 평균은 27%에서 29%로 상승)
- 이는 조세·재정지출이 시장소득의 변화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나타냄

<표 7>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율 %p 변화, 2007~2010년



주: 표 1 주석 참고.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소득이 현재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정의. 절대적 빈곤율은 현재 소득이 2005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정의. 스위스와 터키에 대한 고정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사용할 수 없음

○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의 중위 소득으로 측정하며, 따라서 경기불황 중에는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

- 모든 가구의 소득이 하락하지만 그 정도가 고소득층에서 더 심한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하락
- 따라서 상대적 빈곤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거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절대적 빈곤율(현재 소득이 2005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사용

8. 연령층별 빈곤율

□ 빈곤 동향은 연령층 간에 다르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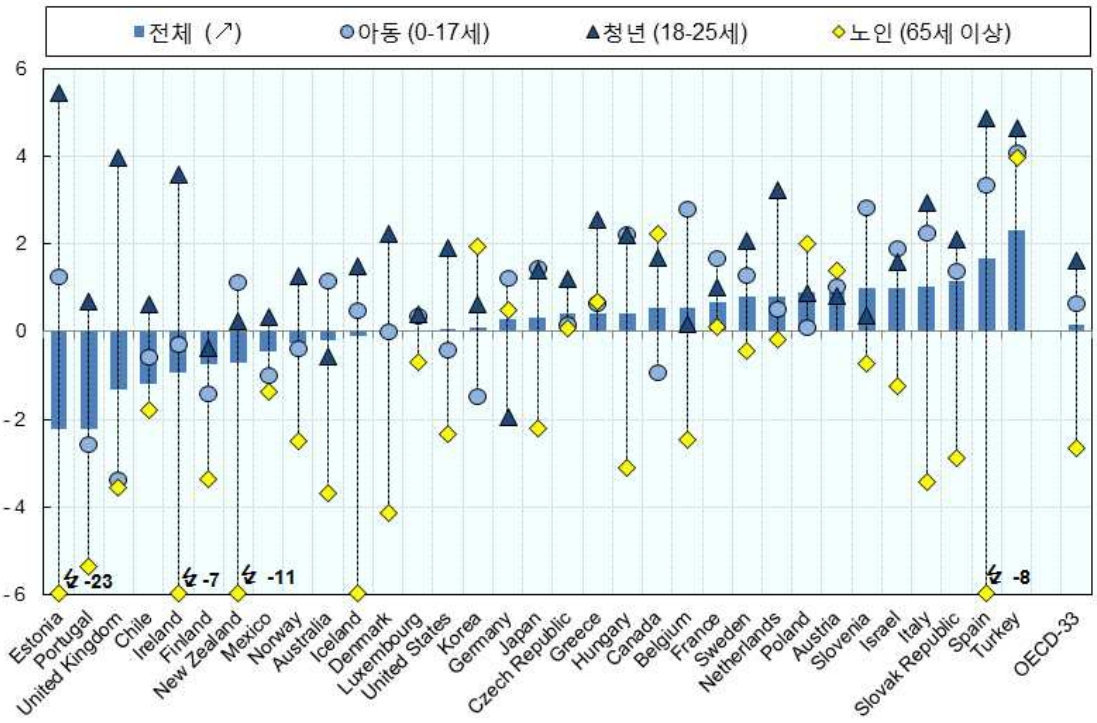
○ 조세·재정지출은 시장소득 불평등 및 빈곤율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통제

- 하지만 그 영향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아동, 청년 및 성인층에서 증가하였지만 노인층에서는 하락

○ 2007년과 2010년 사이 OECD 국가의 평균 상대적 아동빈곤율과 청년빈곤율은 각각 12.8%에서 13.4%와 12.2%에서 13.8%로 상승

-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15.1%에서 12.5%로 하락
- 이러한 패턴은 아동 및 청년층이 노인층보다 점차 소득 빈곤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기존 OECD 연구들을 뒷받침

<표 8> 연령층별 상대적 빈곤율 %p 변화, 2007~2010년



주: 표 1 주석 참고.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소득이 현재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정의. 절대적 빈곤율은 현재 소득이 2005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정의

○ 아동이 있는 가구는 경제위기 동안 큰 타격을 받음

- 2007년 이후 아동빈곤율은 16개국에서 상승하였고, 그 중 터키,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니아, 헝가리에서는 2%p 이상 증가
- 반면 영국과 포르투갈에서는 아동빈곤율이 2%p 이상 하락

○ 2007년 이후 청년빈곤율은 19개국에서 상당히 증가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에스토니아, 스페인, 터키의 청년빈곤율은 5%p 이상 상승
- 영국과 아일랜드의 증가율은 4%p였으며 네덜란드 역시 3%p 증가
-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청년실업율이 증가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만 청년빈곤율이 2%p 하락

○ 다른 연령층과는 대조적으로 상대적 노인빈곤율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크지 않음

- 2007년과 2010년 사이 노인빈곤율은 32개국 중 20개국에서 하락
- 터키, 캐나다, 폴란드에서만 2%p 이상 증가
- 이는 노령연금이 경기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을 시사
- 2010년 이전까지는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긴축에서 연금은 예외로 설정
-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이 빈곤선 임계소득에 가깝게 분포
- 그 결과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경제성장기에는 상승하고 침체기에는 하락 (성장기에는 중위소득이 연금보다 빠르게 증가)

○ 이러한 현상은 에스토니아에서 여실히 들어남

- 에스토니아의 중위소득의 하락과 안정된 연금이 상대적 노인빈곤율을 30%에서 7%로 낮추는데 기여
- 뉴질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현상 발생

○ 이와 반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연평균 1.5% 감소한 반면 노인빈곤율은 연평균 1.92% 증가하며 노인빈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부록 1>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상·하위 10% 소득격차, 2010년[10)]

	지니계수(ㄱ)	소득 10분위 배율
Iceland	0.244	5.3
Slovenia	0.246	5.3
Norway	0.249	6.0
Denmark	0.252	5.3
Czech Republic	0.256	5.4
Finland	0.260	5.4
Slovak Republic	0.261	5.9
Belgium	0.262	5.6
Austria	0.267	5.9
Sweden	0.269	6.1
Luxembourg	0.270	5.6
Hungary	0.272	6.0
Germany	0.286	6.7
Netherlands	0.288	6.9
Switzerland	0.298	7.3
France	0.303	7.2
Poland	0.305	7.7
Ireland	0.307	7.5
Korea	0.310	10.5
New Zealand	0.317	8.0
Italy	0.319	10.2
Estonia	0.320	8.8
Canada	0.320	8.9
Australia	0.334	8.9
Japan	0.336	10.7
Greece	0.337	10.8
Spain	0.338	13.1
United Kingdom	0.341	10.0
Portugal	0.344	9.3
Israel	0.376	13.6
United States	0.380	15.9
Turkey	0.411	15.1
Mexico	0.466	28.5
Chile	0.501	26.5
OECD 전체	**0.313**	**9.4**

10)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부록 2> 상대적 빈곤율, 1995년 & 2010년[11)]

	1995년	2010년 (↗)
Czech Republic	4.3%	5.8%
Denmark	4.7%	6.0%
Iceland		6.4%
Hungary	7.4%	6.8%
Luxembourg	5.5%	7.2%
Finland	4.1%	7.3%
Netherlands	6.9%	7.5%
Norway	7.1%	7.5%
Slovak Republic		7.8%
France	7.6%	7.9%
Austria		8.1%
Germany	7.2%	8.8%
Ireland		8.8%
Sweden	3.7%	9.1%
Slovenia		9.2%
Switzerland		9.5%
Belgium		9.7%
United Kingdom	10.5%	10.0%
New Zealand	8.4%	10.3%
Poland		11.0%
Portugal		11.4%
Estonia		11.7%
Canada	10.7%	11.9%
Italy	14.7%	13.0%
Greece	13.5%	14.3%
Australia	11.4%	14.4%
Korea		14.9%
Spain		15.4%
Japan	13.7%	16.0%
United States	16.7%	17.4%
Chile		18.0%
Turkey	16.2%	19.3%
Mexico	21.7%	20.4%
Israel	13.8%	20.9%
OECD 전체	**9.4%**	**11.1%**

11)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

<부록 3> 연령층별 상대적 빈곤율 %p 변화, 2007~2010년[12)]

	전체 (↗)	아동 (0-17세)	청년 (18-25세)	노인 (65세 이상)
Estonia	-2.2%	1.2%	5.4%	-22.9%
Portugal	-2.2%	-2.6%	0.6%	-5.4%
United Kingdom	-1.3%	-3.4%	3.9%	-3.6%
Chile	-1.2%	-0.6%	0.6%	-1.8%
Ireland	-0.9%	-0.3%	3.6%	-6.7%
Finland	-0.8%	-1.4%	-0.4%	-3.4%
New Zealand	-0.7%	1.1%	0.2%	-11.0%
Mexico	-0.4%	-1.0%	0.3%	-1.4%
Norway	-0.3%	-0.4%	1.2%	-2.5%
Australia	-0.2%	1.1%	-0.6%	-3.7%
Iceland	-0.1%	0.5%	1.5%	-6.3%
Denmark	-0.1%	0.0%	2.2%	-4.2%
Luxembourg	0.0%	0.3%	0.4%	-0.7%
United States	0.1%	-0.4%	1.9%	-2.4%
Korea	0.1%	-1.5%	0.6%	1.9%
Germany	0.3%	1.2%	-2.0%	0.5%
Japan	0.3%	1.4%	1.4%	-2.2%
Czech Republic	0.4%	0.2%	1.2%	0.1%
Greece	0.4%	0.6%	2.5%	0.7%
Hungary	0.4%	2.2%	2.2%	-3.1%
Canada	0.5%	-1.0%	1.7%	2.2%
Belgium	0.5%	2.8%	0.1%	-2.5%
France	0.7%	1.7%	1.0%	0.1%
Sweden	0.8%	1.3%	2.1%	-0.5%
Netherlands	0.8%	0.5%	3.2%	-0.2%
Poland	0.9%	0.1%	0.8%	2.0%
Austria	0.9%	1.0%	0.8%	1.4%
Slovenia	1.0%	2.8%	0.3%	-0.8%
Israel	1.0%	1.9%	1.6%	-1.3%
Italy	1.0%	2.2%	2.9%	-3.5%
Slovak Republic	1.1%	1.4%	2.1%	-2.9%
Spain	1.7%	3.3%	4.8%	-8.1%
Turkey	2.3%	4.1%	4.6%	3.9%
OECD 전체	**0.1%**	**0.6%**	**1.6%**	**-2.7%**

12) http://www.oecd.org/els/soc/Income-Distribution-Brief-Figures&Data.xlsx